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 총권 42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그리고 학교도서관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바꾼다. 그리고 획기적인 과학기술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 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의 현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작년에 있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고수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일반인들이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알파고가 기계학습기능을 이용하여 인간이 그동안 축적한 바둑 지식과 경험을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습득하여 인간 고수인 이세돌을 이기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많은 바둑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할 4차 산업혁명은 인간보다 우수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보다 빠른 학습능력과 뛰어난 지능을 가진 기계가 실재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존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여 장기적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장기적으로 교육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보면 각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기존의 많은 산업분야와 직업들이

사라졌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 분야와 직업군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 역시 기존의 많은 산업분야와 직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분야와 직업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된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다가올 미래의 산업과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교육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분명한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란 학교도서관이 강조하는 교육으로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배움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다. 현재 교과서 중심의 주제 내용 학습이 주를 이루는 수동적 교육 방식으로는 결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알고자 하는 미지의 분야에 대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중요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은 스스로 배움을 이루는 값진 경험을 선물한다. 학교도서관의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배울 능력을 갖추고 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 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될 사회에는 더욱 커진다.

정진수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도넷 공동대표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1)

03\_ 학교 도서관 탐방(2)

04\_ 추천도서

201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읽고 생각하고 쓰고 참여한다) 참여하신 선생님들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연진 / 최진 / 원돈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독서가 놀이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 중국 료녕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교사 최정순(崔正順)

며칠 전에 나는 료녕성 심양시제6중학교와 서탑소학교에서 진행된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에 참석하였다. 이번 활동은 한국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단체와 연변화동정보교류유한회사에서 주최하고 료녕성 민족교연부의 지지하에 추진되었는데 이번까지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가 네번째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도서실담당교원 외에도 학교 교도처나 교장선생님까지 초청하다보니 인수가 부족 늘어났다. 한국에서 네분의 교수님이 주장을 맡아 연수를 조직하였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스케줄이 꽉 들어찬 의미 있는 4일간을 보내게 되었다.

학습 첫날 10개 조로 분조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 조는 이수정 선생님(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의 “책놀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실놀이, 줄놀이, 다리셈놀이 등 다양한 놀이방법을 소개하고 “선”이라는 책을 멀티미디어로 보여주면서 그 책에 소개된 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연수에 참가한 여러 선생님들더러 같이 놀이를 해보라며 빨간 테이프로 교실 바닥에 줄을 두르고 사방치기놀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연수에 참가한 선생님 한분이 조용히 나한테 묻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선생님은 처음으로 연수에 참가하신 것 같지 않는데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라고 왔는데 왜 놀이만 배워줍니까?”

“그럼 선생님은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당연히 도서분류라든가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독서를 하고 책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책읽기를 즐기게 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아닐가요?”

나는 처음 연수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독서습관의 양성으로부터 도서분류방법 학습, 그리고 최지혜작가님이 친히 보여주신 한 시간의 열독수업을 청과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책놀이”란 말도 듣게 되었다.

독서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다 알고있을 것이다. 독서습관과 독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소학생 시기이다. 나도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소학생들은 주로 만화를 보기 좋아한다. 만화는 쉽고 재미있지만, 그만큼 압축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어휘, 문장을 섭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장르이다. 특히 소학생 시기의 가장 중요한 독서목표가 어휘력 향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만화만 읽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허나 소학생들에게 무조건 어른들 각도에서 보는 소위의 “쓸모 있는 책”만 보게 하면 애들은 점차 독서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지어 역반심리

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연수 교육을 담당하신 김경숙 선생님(한국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처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사람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듯이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

독서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책이 좋아서 읽어야 한다.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책은 재미있어서 읽는 것. 도서관리원으로서 학생들이 책 자체를 좋아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선생님으로서 도서관을 찾는 애들한테 책 읽기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것인지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그냥 책만 읽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재미난 곳이라는 인상을 박아주어야 한다. 도서관내에서 줄을 치고 줄놀이를 하면 어떠랴? 애들이 좋아하는데, 책을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접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몇 차례의 학습을 거친 후 나는 도서관에 들어선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래야 마음껏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고 배웠다. 우리 학교 도서관을 찾는 학생 중에서 지어 어떤 학생은 점심휴식시간 내내 책표지만 만지다 가기도 한다. 그전에는 빨리 고르지 왜 아직도 못 고르냐고 욕박지르기도 했으련만 지금은 아니다. 애가 당황하여 대충 한권을 고르게 되는데 그 책이 다 행히도 그 애가 즐기는 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애가 다시 도서관을 찾고 싶어질까? 그리고 설사 첫날 마음에 드는 책을 딱히 고르지 못했더라도 이튿날 계속 와서 고를 수도 있고 만지작거렸던 책 중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책을 고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책읽어주기

나는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무슨 책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군 한다. 물론 담임선생님들과 자주 관계를 가지기에 어느 학생의 언어표달 능력이 뛰어나고 글짓기능력이 뛰어난가도 대충 알고 있다. 하여 과학서류에 붙어있기를 즐기는 남학생들한테는 주로 최신과학기술이나 동식물을 소개한 글을 많이 추천해준다. 이야기책을 주로 찾는 여자애들은 연령에 맞게 그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책, 또는 쉽고 좋아할만한 책부터 읽도록 던져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 특히 저년급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는 애들이 오면 나는 주로 이야기책을 권한다. 특히 도서관담당으로 몇 년 간 사업을 하면서 나는 행운스럽게 열독시간 상과를 맡아하게 되었는데 학급마다 매주 한 시간 씩 수업할 수 있었다. 하여 저년급 고년급을 막론하고 책을 많이 읽어주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뇌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저년급은 주로 재미난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는데 그림이 큼직한 아동도서를 읽어주었고 중고년급인 경우 책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읽어주었다. 책의 일부를 읽어주며 책을 소개해주는 것인데 맛있는 사과 한쪽을 잘라 맛보게 하는 것과 같다. 아이 스스로 책이 좋아서 읽게 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독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를 만나도 본척만척하던 애들이 “열독선생님”하면서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길정도로 어느새 우리는 가까워져 있었다. 그것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점이다. ‘책 읽어주기’를 통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바로 ‘듣기 태도의 변화’이다. 그렇게 까불며 가만 앉아있지 못하던 애들도 책읽기시간만큼은 놀랍게도 조용하고 진지했다. 그리고 책속의 주인공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게 얼굴표정에서 력력히 나타났다. 독서관 재미난 “놀이”이다. 독서를 통해 진행되는 극놀이도, 책빙고도, 카드놀이도, 독서캠프도 죄다 재미난 놀이인 것 같지만 또한 독서흥취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즐거운 놀이터이다. 내가 4차례의 도서관리원 연수에서 얻은 제일 큰 수확인 것 같다. 예전에 머리 속에 박힌 도서관은 바늘이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분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거운 “책놀이”를 하는 곳이 된다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렸을 때 선생님과 같이 했던 전통놀이가 재미있었다면 그 선생님이 권유한 책을 마다할 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애한테 놓고 말하자면 같이 “책놀이”한 선생님도, 읽었던 책도 평생 고마운 존재로 남을 것이다.



### <까막눈삼디기를 읽고>

중국 료녕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5학년 1반 김정원

미혜에게~

미혜야, 난 오늘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까막눈 삼디기>라는 책을 봤어. 이 책속의 임삼덕은 소학교 5학년을 다니는 남자애인데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어. 심지어 글자도 잘 모르는 아이였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까막눈 삼디기”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어.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까막눈 삼디기”란 별명까지 지어주니 삼덕이는 얼마나 슬프겠어.

어느 개학날 그 반에 은지라는 여학생이 전학해 왔어. 전반 학생들과 달리 삼디기의 짝꿍인 은지는 삼디기한테 책도 읽어주고 글자도 배워주었어. 받아쓰기에도 신심이 없던 삼디기가 은지의 도움으로 90점이란 성적을 되였어. 와- 친구의 도움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는구나! 삼덕이는 정말 행운이야. 은지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존중도 받고 성적도 제고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 글을 읽고 나는 은지가 너무 대단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평시에 공부를 잘못하는 애라면 부끄러워 사귀기 싫다고 업신여기며 멀리하기까지 했어. 친구들에겐 각자 자기의 우정이 있는데 말이야. 이 책을 읽고 나는 다시는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될 거야!

2017년 1월 27일 너의 친구 정원이가

### “신발” 소동

중국 료녕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3학년 1반 조준예(趙俊譽)

지난번에 읽은 일이다. 점심 휴식시간에 나와 옥지는 밥을 먹자마자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우리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짝친구이다.

우리는 누가 신을 더 높이 차는가 시험을 했다. 공중에 대고 차고는 서로 제 것이 높다고 하다가 벽에 대고 차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먼저 잤다. 신이 1층을 넘어 벽에 탁 부딪치고 땅에 푹 떨어졌다. 나는 더 높이 차겠다고 마음먹었다. 신을 반쯤 벗어서 발끝에 살짝 걸고 2층 벽을 향해 힘껏 잤다.

“훅-”

내가 찬 신발이 1층을 넘어 2층으로 날아오르더니 열린 창문 안으로 횡하니 날아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은 도서실이었다.

“아차!”

우리 둘의 입에서 동시에 놀란 감탄이 터졌다.

(도서실선생님께서 맞았으면 어찌지? 무엇을 마사버리지나 았았나?)

내가 어쩔 바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옥지가 나를 끌고 교사청사 안으로 달려갔다. 뽀이라면 내버려둘 텐데 신이라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한쪽은 신을 신고 한쪽은 맨발인체로 험레벌떡 옥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도서실은 문이 잠겨져있었다.

한쪽을 맨발로 교실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 엄숙해서 나를 바라보던 담임선생님 까지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일의 전후 과정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나와 옥지를 끌고 다시 도서실로 갔다. 때마침 도서실선생님이 돌아오셨다. 우리는 도서실에 들어가 이곳저곳 한참 찾아서야 책상 밑에서 나의 신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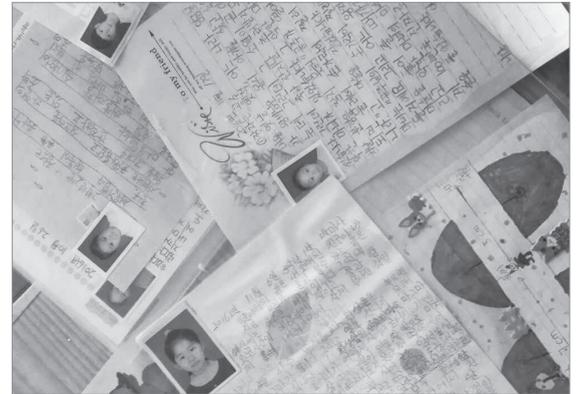
“준예학생, 이렇게 축구를 차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겠네요, 이후에는 조심해서 놀아요!”

도서실선생님의 말씀이 고마웠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놀음이었고 “맨발대왕”이란 별명을 갖게 된 “신발” 소동이였으나 항상 같이 해준 옥지가 있어 참 좋았고 나의 동년의 인상깊은 그림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지도교원 : 리설매(李雪梅)

평어 : 그날 한쪽 맨발로 들어오던 준예가 너무 우스웠어요. 친구랑 같이 재미있게 보내면서 점심시간에 당했던 창피를 있는 그대로 재치있게 잘 표현하였어요.



### \*편집자 주

학도넷은 2015년부터 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원고는 멀리 중국 료녕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도서관담당선생님이 도서관운영하시며 겪은 이야기와 아이들 글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맞춤법과 말투는 조선족학교에서 쓰는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201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 <읽고 생각하고 쓰고 참여한다> 참여하신 선생님들



### 아득

미사 다미안 글 / 요세프 빌콘 그림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 2004년 8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다려 줄게, 작은 꽃아”

아득은 꽃을 보살피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아득은 바람도 막아주고, 짐승들이 행여 밟지 못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득은 자신의 개를 죽인 늑대에게 복수한 후 더욱 슬퍼집니다. 동물들은 아득이 무서워 다가오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득은 자기도 모르게 푸른빛 여우를 떠올립니다. 여우는 별이 친구라며 밤마다 별을 기다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앞에 피어있는 가냘픈 꽃을 봅니다. 언제 짓밟힐지 모르는 무방비인데도 꽃은 아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득은 꽃에게 현재 모습이 좋은지 묻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덮여서 꽃이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될 때,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득은 이제 혼자 아닙니다. 아득은 창을 스프루 놓아버리며 꽃에게 속삭입니다. 살아오면서 슬픔에 잠겨 외로울 때나 바쁜 삶에 소중한 이들을 잊을 때마다 아득은 내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려 줄게.”

-홍현희(여주지역 책나루터 활동가)



### 보물지도

모치즈키 도시타카 글 / 은영미 옮김  
나라원 / 2010년 1월

꿈으로 가는 첫 발걸음 - 나만의 보물지도 만들기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란 자신의 꿈을 사진, 그림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보물지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눈으로 자주 보고, 뇌 속으로 전달하면 꿈을 이루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여기에 촉매제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적 선언을 더하라고 작가는 얘기한다. 예전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지금 세 아이의 엄마로서 읽으니 성공보다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책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영 선수가 외친 말이다. 우승에 대한 절실함을 반복적인 다짐으로 본인의 뇌 속 깊이 전달하였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꿈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다짐한 대로 실현할 수 있어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꿈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꿈으로 가는 첫 번째 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꿈의 보물지도 만들어서 걸어갈다.

-한경화(경기 광주 도곡초등학교 사서)



### 청구회 추억

신영복 글 / 김세현 그림 / 조병은 역  
돌베개 / 2008년 7월

같은 추억이라도 마음에 남아 있는 크기는 다르다.

감옥의 벽에 기대어 왜 하필 청구회 어린이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을까? 매일 마지막 토요일에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너무 짧게 끝나는 생애의 아쉬움, 절망의 순간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쓰기 시작한 청구회에 대한 추억은 ‘옥방의 침통함에서 진달래꽃처럼 화사한 서오름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미술실에 드나들며 보았던 “전장의 아이들” 모습과 닮은 청구회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어쩌면 당연한 인연이었을 것이다. 그림 속 아이들 표정과 모습을 닮은 청구회어린이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으리라. 일회용 만남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뜻 깊은 일을 찾고 있었던 청구회어린이들, 현실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저자는 그들과 만남을 계속할 수 없었던 아쉬움으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나는 같은 추억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억은 우리들 삶 속에서 만나는 향수이며 기억의 순간과 감동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읽었다.

-김동현(전 여주도서관 사서)



###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글 / 강주현 옮김  
현대문학 / 2011년 10월

책에 머무르고 싶을 땐.

살아가다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길을 헤매게 될 수도 있다. 방향을 잃고 길 위에 허연없이 서있는 막막함이 들때 <월든>을 꺼내보자.

어느새 호숫가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지는 말자. 봄에서 겨울이 난 후 다시 숲이 초록으로 물들고, 동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자.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자연을 천천히 음미해보자.

책을 읽는 동안 소로우가 그려내는 세밀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책 속에 빠진다라기 보다 ‘머무른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꿈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탈. 물질 문명 비판, 자연에의 삶 추구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살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생의 섹트, <월든>을 읽으면서 잠시 머물러 보아도 좋지 않을까?

-김연진(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 택시 소년

데보라 엘리스 글 / 윤정숙 옮김  
천개의바람 / 2014년 2월

부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열네 살 소년 디에고는 엄마, 아빠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면서 함께 수감

됩니다. 심지어 어린 여동생은 감옥에서 태어나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볼리비아에서는 아이도 함께 수감시키는 게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입니다. 바깥에선 아이들을 보호해줄 시설이 없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 곳에선 죄수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방과 최소한의 음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디에고는 책임감이 강한 소년으로 가족들을 위해 ‘택시’가 되지요. ‘택시’란 감옥 안과 바깥을 연결해주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죄수들이 만든 것을 내다 팔거나, 편지를 전해주고 품삯을 받는 거지요. 일거리를 많이 받으려면 신속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의 실수로 ‘택시’ 자격을 박탈당한 디에고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미국인의 불법 코카인 공장에서 노동 착취에 시달리게 된 디에고의 탈출기가 긴장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최진(천개의바람 출판사)



### 위험한 책

존 라이트 글 / 리사 에반스 그림  
김혜진 옮김 / 천개의바람 / 2014년 7월

“브릭은 커다란 도시에 있는 조그만 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로 시작하는 첫 장면을 보면 브릭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

아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것 같다. 홀로 사는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과 사각틀 모양의 집들은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암울한 세계를 보여준다. 일터로 가는 다른 사람들과 브릭은 잿빛과 붉은 빛 2가지로 나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눈다. 여기서 얼굴을 약간 붉은 홍조를 띤 사람들은 브릭과 같은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같은 시도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린이 독자에게 도움을 준다. 브릭이 가는 방향이 사람들과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브릭은 ‘위험한 책’에 접근할 수 있다. 위험한 책으로 분류된 책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과 콩나무>도 있다. 브릭은 그 중 꽃이 그려진 책을 가지고 와서 몰래 읽어본다. 왜 꽃의 책이 위험한 책일까? 꽃의 존재를 비밀로 하는 이유는 뭘까? 책을 통제하는 사회. 이 사회의 사람들은 표정이 없다. 감정도 없어 보인다. 도시는 우울하다. 서로에 대한 경계를 무관심으로 포장하고 있다. 브릭은 책에서 본 꽃을 찾아 헤맨 끝에 고물상에서 꽃씨를 찾았지만 씨앗을 심은 흙이 없다. 흙

학교도서관에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선생님, 학생들에게 책읽기와 글쓰기를 잘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적극적인 독자는 출판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출판물 독려하는 방법은 서평! 서평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열쇠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읽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언어로 쓸 수 있는 서평쓰기가 건강한 독서환경을 만듭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담당자들이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고 수서하는 책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커녕 먼지조차도 없다. 혹은커녕 먼지조차 없는 도시는 깨끗함이 아니라 삭막함이다. 한 컵의 먼지 속을 뚫고 나오는 초록색 싹을 보며 브릭은 처음으로 미소 짓는다. 드디어 꽃이 피자 꽃과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지만 청소기계가 꽃을 빨아드려 죽게 된다. 브릭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꽃을 찾아 도시의 경계로 간다. 그리고 다양한 꽃과 함께 있는 해맑은 미소는 독자를 향하고 있다. '위험한 책'이라는 분류로 책을 통제하는 사회를 주제로 토론하기에 좋은 책이다.

-박영옥(학도넷 운영진)



### 당신 없는 나는?

기욤 뫼소 글 / 허지은 옮김 / 밝은세상  
2009년 12월

나는 심장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나는 심장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

'하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항상 사랑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심장에게 두근거리는 임무를 맡겨 두고, 다른 하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리라.'

대학을 졸업한 마르탱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파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그 곳에서 만난 20살 대학생 가브리엘과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사랑을 하고 헤어진 뒤 잊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13년 후 다시 만난다. 프랑스 경찰이 된 마르탱 그가 뒤쫓는 세계적인 명화 도둑 아키볼드의 딸 가브리엘로.....

딸이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마르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명화 도둑으로 변신한 부분이 좀 억척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기욤 뫼소의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서스펜스 그리고 스틸 같은 요소들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고통의 현실을 잊고 달콤한 로맨스에 빠져 감동을 느

끼게 해주고 골치 아파 멀리하던 책을 다시 가까이 하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인 것 같다.

-양하진(경기 광주 도곡초등학교 교사)



### 수박 수영장

안녕달 글 / 창비 / 2015년 7월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어디 가?

수박 수영장에!

허허, 녀석들 신났네.

커다랗고 시원한 수박수영장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여름축제가 시작됩니다.

석 석 석 석 석 석 석 석..... 받아라, 수박폭탄!!! 압!! 으아아아아! 하하하! 이히히! 킁킁!

모두 함께 철썩철썩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고입니다. 햇별이 너무 뜨거워질 즈음 구름양산과 먹구름 샤워를 하거나 수박껍질 미끄럼타기, 모래 쌓기, 눈사람 만들기 등 수박수영장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형란(학도넷 운영진)



### The little people project 슬린카추(Slinkachu)

슬린 카추의 사진집입니다. 이 작가는 일종의 설치미술가, 혹은 퍼포먼스 예술가라고 합니다. 현대 문명 속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또 다른 한 세계를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의 세계를 아주 아주 작은 모형 인형들로 표현했네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그들에게는 미지의 탐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길 가에 쏟아진 우유 속에서 그들은 유유 자적 보트를 타며 즐기기도 합니다. 평범한 물체나 모양들도 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죠. 어찌 보면 장난기가 배어있는 듯한, 사진 한 장 한 장들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기발한 발상에 감탄하며 웃다가 점점 서늘한 느낌이 드는 작품

들도 많아요. 더구나 이 작품들은 전시장이 도시 거리 곳곳입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작품이 숨겨진 도심 곳곳..... 예를 들어 시멘트 벽 틈 새라든가, 버려진 담배꽂초 밑이라든가, 벤치 밑에 다리 사이, 등등 구석구석을 찾아 그의 작품을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찾아서 보는 관람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사람들 발길에 채여 다 부러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면 그의 작품은 어디론가 쓸려가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런 과정이 다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니.....

-오경선(일산지역 활동가)



###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신운선 글 / 서현 그림 / 문학과지성사  
2016년 5월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어둠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별을 빛나게 해주니까."

알코올 중독자 엄마 밑에 방치된 남매는 보호소로 보내지고, 누나 유진은 소식이 끊긴 할머니를 찾아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갖고, 친구를 사귀어 속마음을 터놓고, 생일파티도 해보고 싶은 아이. 유진은 그냥 그 나이 때 하는 일이 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야 할 것 같은 암울함과 동물원의 동물 보듯 보는 시선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표현에 어색해하는 유진의 심리와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삶이란 어쩐지 무겁고 슬프고 어른 같은 단어'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 자신을 다시 찾기를 기도합니다. 유진은 아직 빛나지 않은 별들도 좀 더 어두워지면 빛날 것이라 합니다. 추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듣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해피버스데이 투 미." -홍현희(여주지역 책나루터 활동가)

## 제2회 전국 어린이 독서감상문 대회

**대상** 전국 어린이 **대회기간** 2017년 5월 1일 ~ 6월 16일

**독서감상문대회 참가 내용** 200자 원고지 2매 이상  
초등 저학년 / 중학년 / 고학년 부문

**시상내역** 인터파크상(개인상) 36명 / 단체상 6개교 / 지도교사상 6명

개인상 : 상장(인터파크 18명 / 지역사회교육협의회 18명) 문화상품권 5만원권  
단체상 : 최다 독후감 응모 학교 1개교 상패 및 도서 100권  
우수 독후감 선정 학교 5개교 상패 및 도서 100권 / 지도교사 6명 상패 및 도서 25권

**① 온라인 응모** 학교, 이름, 선생님 성함, 전화번호 필히 기재

응모방법 : 인터파크 도서 메일 접수  
접수 : kidsbook@interpark.com 접수일자 : 2017년 5월 1일 ~ 6월 16일

**② 우편접수** 학교, 이름, 선생님 성함, 전화번호 필히 기재

응모방법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접수 접수일자 : 2017년 5월 1일 ~ 6월 16일  
주소 : 경기 파주시 회동길 329 2층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문의전화 : 031-955-9680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 내 생각을 보다 잘 전하고픈 마음에서 다녀온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김연진(부산 보수동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사무국원)

내리는 지난 추운 겨울날, 양평의 한적한 한옥에서 1박 2일 동안 '글쓰기' 삼매경에 푹 빠졌던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남겨 봅니다. '시 그림책 만들기'로 가볍게 몸 풀기가 끝나고

본격 서평쓰기 입문~ 부산에서 먼 길 온 만큼, 김혜원 선생님의 한 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 Chapter 1. 글쓰기는 무엇일까요?

"글쓰기란 내게 무엇이기에,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앉아 글쓰기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인가?"

본격적인 포문은, 여기에 왜 왔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왜 글을 쓰려고 하는지, 마지막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이야기 해봅니다. '무엇을' 배워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왔던지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왜?' 질문은 나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저는 왜 여기 왔으며, 왜 글을 쓰고 싶었던 걸까요?

"쓰고 싶은 욕망과 평가 받는 두려움 사이, 겁먹지 말자"

그렇게 한 분 한분의 이야기를 돌아가며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책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의외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갖고 있었구나 하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물론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하더라도, 이 책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설명할 방법을 몰라 헤매이던 경험 누구나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좋아. 무조건 좋다니까요. 떼쓰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글이 평가 받는 두려움을 떨칠 방법.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되뇌어 보면 어떨까요?

"내 글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나중이라도 고치면 되니까요.

### Chapter 2. 잘 읽기

서평 쓰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 텍스트를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읽는 내내 '내 생각을 잃어 버리지 않기' 그 과정에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정리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옳다

모든 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 없이 읽을 책을 고르지는 않으시겠죠?

두 번째, 점점 찾기

읽다보면 작가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을 때도 있겠죠? 작가의 마음=내 마음

또는 저자의 생각은 이러 이러 한데, 내 생각은 이러 이러해~ 그런 충돌은 책 여백에 흔적을 남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그 책보다 더 좋은 이유!

분명 우리들 선택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찾으세요.

이런 작업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겨 나겠죠~

"하나의 선택은 근거를 가진다. 그 근거는 나의 내부에 있다"

<읽기>

1. 우선 읽기
2. 선택(이유)
3. 메모하면서 읽기
4. 단어 모으기 (핵심어 10~15개)

아이들과 서평수업을 진행할 때는 단어 찾기까지만 해도 좋답니다.

단편 소설을 같이 읽고, 이 책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를 같이 묶어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5. 작가가 가장 공들여 생각한 부분 찾기

### Chapter 3. 서평쓰기

<쓰기>

1. 한 줄 줄거리 쓰기 : 핵심 단어 줄거리 요약하기
2. 한 줄 느낌 쓰기 : 핵심 단어로 한줄 느낌 쓰기
3. 제한 없이 쓰기
4. 200자로 정리
5. 100자로 정리
6. 500자로 정리

서평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아껴가면서 써야합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없애고 100자로 줄일 수록 더욱 정교한 작업이 된답니다. 이때 한 줄 줄거리, 그리고 한 줄 느낌 문장을 토대로 써나가면 글의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고 방향성을 지키면서 서평을 쓸 수 있습니다.

### Chapter 4. 침묵과 지도

드디어 밝아온 아침, 합평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고르고 고른 어휘. 이미 내 손을 떠난 글. 남은 건 이제 침묵의 흔적, 빨간펜 수정의 흔적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품을 떠난 글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남들 눈에 그 글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또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읽고 쓰는 것은 나의 시선으로, 쓰고 읽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

그렇게 밤사이 다 쓰고 만난 저의 글은 왜 이렇게 썼지 싶은 글이 눈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남들보다 제일 먼저 끝내놓고 즐기던 저의 여유로움은 온데가고 없고 부끄러움은 오롯이 제 몫이었답니다. 저는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여 다시 서평을 제출해야만 했

답니다.

내 생각을 '보다 잘 전하고픈' 마음에서 다녀온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유난히 밝은 달과 함께 궁중 음식처럼 정성스럽고 맛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온돌

무엇보다 함께한 사람들 모두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계속 살피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는 말을 간직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서평학교' 이만 마칠까 합니다.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 절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최진(천개의바람 출판사 대표)

얼마 전 SNS에서 "정말 좋은 책인데 구입하려고 보니 절판이 되어 안타깝다. 이런 좋은 책을 절판시킨 출판사가 원망스럽다. 무책임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글은 종종 보입니다. 요즘 품질, 절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책이 나온 지 일어난 만에 품질이 되고, 출판사에 문의하면 다시 찍을 예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절판이지요. 왜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날까요? 많은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판사가 책임을 다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까요?

'천개의바람'은 이제 7년차에 접어드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만 12년 동안 큰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영업자로 일했던 저는 아는 만큼 창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큰 출판사를 다니며 마케팅의 힘으로 파는 책들에 지쳐서 정직한 어린이 책을 만들고는 싶었지만 다 품종 소량 생산인 어린이 책의 특성상 소자본의 1인 출판사로 해나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읽었던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책 제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생업을 위해 창업하면서 결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절판하지 않겠다." 살아남아 10년차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가 되는 것, 계속 책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지라 다른 결심은 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펴낸 책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천개의바람'이 펴낸 책은 80권, 아직까지 절판된 책은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76권의 책 중 1년 동안 300권(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절판 기준) 밑으로 팔린 책은 15권, 20%에 달하는 수입입니다. 한 달에 2~30권, 하루에 한 권도 팔리지 않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거나, 초판을 찍은 지 한참 만에 재판을 찍어야할 때마다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흔히들 도서관이 늘어나 초판을 모두 소화해준다면

출판사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책이 초판 이후에 팔리지 않는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책을 펴내는가는 출판사의 책임이지만, 그 책이 절판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 서점, 도서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지만 도서관에 있으니 사지 않은 독자, 정말 좋은 책이지만 아이들이 찾지 않으니 들여놓지 않은 서점, 정말 좋은 책이지만 신간이 아니니 수서하지 않은 도서관, 정말 좋은 책이지만 팔리지 않으니 절판한 출판사. 우리 모두가 절판에 책임이 있습니다.

초판만 팔고 절판시키면 돈을 남길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쉽게 절판 결정을 내리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팔리는 책이 있으면 거기서 남긴 수익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게 보통이지요. 팔리는 책이 있으면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 책 시장은 일반 판매보다 납품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아이들 책 사줄 돈을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구입하는 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책들이 고만고만하게 팔립니다. 책임질 책이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천개의바람'은 절판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저희 출판사 이름은 '부모가 아이에게 품을 수 있는 천 가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펴내는 책마다 '건강했으면', '친구가 많았으면', '고운 말을 썼으면' 같은 평범한 바람을 담아 만들고 있지요. 하지만 어른의 바람만을 앞세워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책은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재미와 의미가 함께 담긴 어린이 책을 열심히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절판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읽는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책의 절판을 막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을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아픈 4월에 흥부네 꽃을 피우다**  
 원돈 스님(흥부네 책놀이터)

벌써 3년 전 4월 어느 날. 오전에 절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운전을 하고 학교에 가는 길. 별 좋은 나쁜 봄날이었다. 오후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은 늘 졸음과 싸워야했기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뉴스속보를 알린다. 세월호, 수학여행, 단원고, 침몰…… 전원구조라는 단어들 정리되지 않은 채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로 흘러 나왔다. 무슨 일일까. 자세히 들어보니 '안산에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배가 침몰되었는데 다행히 무사하다는 얘기'였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다시 이어지고 나는 잠시 동안 걱정스러

웠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저녁에 들려오는 뉴스는 전혀 다른 소식으로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말들이다. 구조를 했다는 건지, 아이들이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 큰 배가 왜 곤두박질쳐져 있는 건지... 확실한 내용은 없고 이런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었다. 갑갑하고 먹먹했다.

머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절 신도님 아들이 단원고 학생이라는 연락이 왔다. 아무것도 해결이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가서 상진이 엄마 손이라도 잡아줘야 하겠기에 그길로 진도로 내려갔다. 그렇게 진도로, 장례식장으로, 추모공원으로, 광화문으로 세월호의 슬픔에 뒤섞여서 나도 몇 달을 헤매며 보냈다.

많이 슬퍼했고, 또 많이 원망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엇을 슬퍼함인가? 누구를 원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했다? 내 안에 이어지는 질문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했다. 내가 세속에 살았더라면, 출가를 안했다더라면 내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책을 맘껏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어설피지만 그렇게 참고서도 안내서도 없는 흥부네 책놀이터라는 것을 시작했다.

나름대로 공은 들였지만 옥탑방에 자리 잡은 책놀이터는 고객중심(?)이 아니었나보다.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지금의 자리인 정왕1동 시화초등학교 옆으로 지난 해 8월에 이사를 했다.

의욕만 앞섰던 옥탑방에서 내려오기로 마음을 정하고부터는 동네 분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 상황을 꼼꼼히 듣고, 책놀이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 우리 동네는 이주민단지와 겹하고 있어서 엄마가 공단 근로자들이 많아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마음의 양식도 좋지만 함께 어울리는 데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같이 아침을 먹고, 그러다보면 지나는 길에 들러서 물도 마시고, 공기놀이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차츰 들어와 앉아 책보는 아이들도 하나 둘 늘어가고.... 행복한 상상을 하며 흥부네 책놀이터가 아이들 속으로 한결음씩 들어가기를 바랐다.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저녁 무렵 2학년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님, 금요일에 뭐하세요?" 방금 가족회의를 마쳤으며,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엄마는 아기를 낳아서 못 오시고, 아빠는 회사에 가야하고, 베트남 사람이라 한국에 친척도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을 대신해서 올 사람이 스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 그리고 아홉 살 여자아이의 순수함 앞에 그냥 저절로 "그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 사이에선 벌써 스님이 운동회에 간다는 소문이 났는지 한마디씩 한다.

- 이 옷 말고 다른 옷 없어요? - 성운이
- 모자는 꼭 쓰고 오셔야 해요 - 미향이
-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오세요 - 유미
- 스님, 엄마 대신 꼭 오셔야 해요 - 하나

아이들이 좀 걱정하는 눈치다. 부지런히 정리하고 운동화 갈아 신고 학교에 갔다. 좀 어색하기도 하여 운동장 끝을 서성이는데 여기저기서 "스님이다~", "스님~~스님" 하고 아이들이 반긴다. 잠시 후 운영위원장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부석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연예인 부럽지 않은 환호를 받으며 걸어갔다. 이 때부터 우리 흥부네 아이들이 더 큰소리로 환호하고 손짓한다. 이렇게 흥부네 아이들 덕에 오랜만에 보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풍경속으로 짧은 나들이도 다녀왔다.

에휴…… 세상이 아직 낯설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삶이 낯선 스님이 흥부네 책놀이터에서 만나서 좌충우돌 예측불허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침먹을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신청한 아이가 쑥쓰러워서 안 오기도 하지만 오후에 책보며 놀던 아이가 "스님, 저도 아침에 와도 되요?" 하며 스스로 오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게 어떤 기준 없이 아침에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흥부네 책놀이터에서 스무 명 안팎의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다. 4학년 지훈이가 밥을 먹으며 문득 "스님 우리 동생 서빈이 백일 언제 게요?" 한다. 지난해 겨울에 했던 은하수 백일잔치를 눈여겨 본 모양이다. 삼둥이 은하수도 백일잔치 해줬는데 오둥이 서빈이 백일잔치는 당연지사 되었다.

처음 시작은 책놀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별거 있겠나 싶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 놀러 오고 우린 그냥 책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품만 열어 놓으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불쑥불쑥 집안 얘기를 한다. 휴일에도 배고프다고, 심심하다고, 온종일 혼자 있어야하는 텅빈 집이 사막 같다고 전화를 한다.

비가 억수로 쏟아붓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토요일 오후였다. 책놀이터로 가는 길에 천동 번개까지 보태주니 이런 날은 누가 오겠나 싶었다. 둘러만 보고 얼른 돌아와 따신 방에서 쉬고픈 나의 예상을 깨고, 흥부네 단골손님 지훈네 3남매, 다인이, 하나네 자매, 이렇게 여섯 명의 아이들이 오들오들 떨며 흥부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는 왜 인제 오느냐며 투정을 하고, 다인이는 천동번개가 무섭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비가 와서 공원에는 갈 수 없고, 집은 좁고, 아이들이라 에너지는 넘치고, 흥부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에 나도 울컥했다. "그래그래, 스님이 늦어서 미안해. 우리 추운데 떡라면 끓여 먹을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네~~" 한다. 떡라면 한 그릇씩 푹푹하고 간식 시간에는 달걀도 삶아 먹고 그렇게 책도 좀 보다가 아이들이 갈 때 즈음에는 다행히 비도 개이고 햇님이 반짝 나왔다.

아이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엔 오늘 참 잘했다고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같은 생각에 혼자서 피식피식 웃는다. 지지난해 시월부터 단원고 희생자 2학년 3반 황지현이 엄마가 책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아침 준비를 같이 하신다. 지현이에게 못 다 해준 맛있는 아침을 해주고픈 마음으로……. 그렇게 아픈 4월이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흥부네 책놀이터 꽃을 피우고 있다.

## 학도넷 소식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6년 12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겨울호 발행(통권 41호)
- 2016년 12월 15일 2016 학도넷 후원의 밤
- 2017년 1월 11~12일 201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 신입회원 (2016년 12월~2017년 3월)

정회원 : 권순용, 변향희

준회원 : 최은옥

웹회원 : 정지영, 박영혜, 김민석, 이선경, 이슬기, 황정하, 박소정, 신경숙

### 회비 및 후원내역 (2016년 12월~2017년 3월)

#### 정회원 회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김경숙(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운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마민희 문수지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송경영 성미경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금화 이미순 이유정 이현이현에 임경순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은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기정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백연주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랑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매월 2만원 : 김순정(부천소사초)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연회비 : 안덕희(3만), 김효숙(6만), 김경숙(보령6만)

####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우리는 현재다(빨간소금)/ 그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낮은산)/ 어둠 속 어딘가(고래가숨쉬는도서관)/ 잘 보이고 싶은 날(북극곰)/ 도깨비가 슬금슬금(북극곰)/ 한밤의 정원사(북극곰)/ 동생을 반쯤해드립니다(살림어린이)/ 아홉시에 뜨는 달(내인생의 책)/ 10대와 통하는 농사이야기(철수와 영희)/ 세상에서 가장 큰 담요(낮은산)/ 아빠가 그려준 코끼리(북극곰)/ 코코가 그려준 코끼리(북극곰)/ 콩콩(북극곰)/ 보리 국어버로쓰기사전(보리)/ 우물안 세상만사(알토란북스)/ 한 치 앞도 모르면서(빨간소금)/ 중등 글쓰기, 어떻게 하지?(양철북)/ 니체, 버스킹을 하다(토토북.탐)/ 아이는 웃는다(천개의 바람)/ 펭귄은 너무해(미디어창비)/ 야생동물은 왜 사라졌을까?(철수와영희)/ 너는 그리고 나는 달린다(내인생의책)/ 새앙머리 보름이(내인생의 책)/ 지구인에게(북극곰)/ 잠자는 숲속의 어린마녀(북극곰)/ 후쿠시마의 눈물(사계절)/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사계절)/ 자꾸 건드리니까, 언제나 칭찬, 수확왕 바코(사계절)/ 할아버지, 할아버지(북극곰)/ 줄무늬미용실(북극곰)/ 청춘의 가격(사계절)/ 몸 잘 자라는 법, 음식 잘 먹는 법(사계절)/ 지렁이똥, 상추씨, 두더지의 소원(사계절)/ 선거로 읽는 한국현대사(철수와영희)/ 우리학교 장독대(철수와영희)/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간 선생님, 평화를 나누는 그림편지, 사라지는 별을 지켜라(초록개구리)/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수업,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성미산학교의 마을만들기 마을학교, 자전거로 충분하다(교육공

동체넷)/ 먼저 온 미래(사계절)/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사회평론)/ 칸트, 근대철학을 완성하다(글라이더)/ 인문학으로 만나는 마음공부(글라이더)/ 나의 첫 사회생활(길벗스쿨)/ 도전! 생존 퀴즈(길벗스쿨)/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듬뿍)/ 부끄러움의 깊이(빨간소금)/ 동물권리이야기(철수와 영희)/ 카이투스(북극곰)

###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보호)/ 개똥이네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서울교육(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모아모아(사)한국문예원어문콘텐츠연구원/ 부산보수동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소식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개똥이네놀이터/ 학교도서관저널/ 2017추천도서목록(학교도서관저널)/ 2016동화동무씨동무운영보고서(어린이도서관회)/ 오늘의 교육(교육공동체넷)

### 겨울연수에 책 보내주신 곳

롤러 걸(비룡소)/ 끝없는 게임(비룡소 고릴라박스(20권)/ 캐릭터 머그컵(20개)

### 새책 저자후원

코스모스 스텔3-고래가숨쉬는도서관(50권) 저자 안재희 기증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2016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

학도넷의 열세번째 겨울~지난 12월 15일 저녁 5~10시까지 학교도서관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리리 선생님의 그림책 여행, 북뮤지션 제갈인철의 책과 노래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작은책상 인형극은 음악과 책속에 폭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극단 놀자의 함께 체험현극 "색갈손님"은 바라보기만 하던 연극에서 벗어나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열림프로젝트 페이스 투 페이스, 라온언니가 바로바로 내려주는 커피까지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시고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의 밤 후원금으로 학도넷에 응원 보내주신 분들>

- 1만 : 무명
- 2만 : 강병희, 강정희, 강지영, 권혁정(나무처럼), 김수현, 김영진, 김은영(북원스), 김은영(문화살림), 문원림, 박고운, 박명희, 박영혜, 박정해, 변이정, 신정임, 신정화, 신향경, 신형란, 안덕희, 안병배, 안승문, 여유담출판사, 이명귀, 이승길, 인디자인, 임미옥, 임정은, 장부자, 정해선, 조현정, 최미숙, 최진(천개의 바람), 허기(봄봄), 황정임(노란돼지)
- 3만 : 성산동 동네책방
- 4만 : 변향희, 이경자, 이소연(번천초), 이숙현(구미금오유치원), 이영주(연가초)
- 5만 : (사)어린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백화현, 육용희(어린이문화연대), 이미숙(영등포구립도서관)
- 6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박수영, 공필화 참가비
- 8만 : (사)놀이하는사람들
- 10만 : 김성남(책씨앗), 김진희(관악), 김혜원, 문학동네(정인호), 바느질책수다, 변영이, 보리출판사, 송정옥, 안재희, 양철북출판사, 어린이책출판협의회(박봉서), 오승현(글로연), 오현애(박물

관이야기), 우리교육(박철환), 이금희(외등원초 4명), 이덕주, 청소년출판협의회, 평화를품은집(꿈교), 학교도서관서울모임,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4만 : 강애라(미양중)

·15만 : 학교도서관저널어린이문학팀

·20만 : (주)비룡소, 박영옥, 학교도서관저널

·30만 : 정진수(공동대표)

·50만 : (주)창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총계 : 5,680,000원

### <후원의밤 도서후원>

니체, 세상을 넘어 나만의 길을 가다(글라이더),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애덤 스미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다(글라이더)/ 짜장 줄넘기(천개의바람)/ 학교도서관저널/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집(보리)

### 201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했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참여한다>

·강사 : 김혜원(어린이책 비평가, 학교도서관저널 신간선정위원/ 어린이책분과장)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때 : 2017년 1월 11일(수)~12일(목) (1박 2일 숙박연수)

시간	1월 11일(첫째날)
주제	일단 쓰기
10:00~12:00	몸풀기로 간단한 시 그림책 만들기
12:00~13:30	점심
13:30~15:00	비평과 토론 맛보기
15:00~15:30	발표
15:30~16:00	휴식
16:00~19:00	비평의 첫걸음, 잘 읽기 1) 주어진 단편 읽고 단어로 정리와 발표 2) 문장쓰기(한 문장 ▶ 이백자 ▶ 오백자) 3) 단락쓰기
19:00~20:00	저녁
20:00~22:00	침사와 토론
시간	1월 12일(둘째날)
주제	생각과 글의 차이
9:00~12:00	말과 글의 간극 줄이기 1) 내가 권하는 책 소개말 2) 말한 것을 글로 쓰기 3) 모둠별 침사, 전체 침사
12:00~13:30	점심
13:30~16:00	서평 vs 서평 1) 이상한 서평 침사해 보기 2) 이상한 문장 찾아보기

### 학도넷 창립13주년기념 공연과 북토크쇼 및 정기총회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오후 2시~4시 30분

도서관, 새로움에 도전하다!

- 1) 파격적인 도서관 공간
- 2) 문화플랫폼 도서관
- 3) 사서의 새로운 확장-북큐레이터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